

‘해양 관광휴양도시’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9년 연속... 섬관광 활성화 기여 거북선 축제 등 오감만족 성과

여수시가 9년 연속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받았다.

여수시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부문 대상을 받아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 휴양도시’ 위치를 굳혔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가의 자산으로 분야별 경쟁력 지수를 평가해 대한민국 산업, 문화, 도시, 농·식품 등 최고의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졌다.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CI)는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종합 호감도 등 지표별 소비자 평가에 의해 산출된다.

여수시는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부문에서 종합점수 77.84점으로 통영, 남해, 신안에 앞서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는 올해 ‘야간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섬관광 활성화, 웰니스·온택트 관광개발, 글로벌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등 관광 트렌드에 발맞춘 콘텐츠 개발로 관광 활성화를 이끌었다.

여수 대표 축제인 ‘거북선 축제’,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여수동동북축제’, ‘영취산 진달래 축제’ 등 인기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지난해 12월24일과 30일은 여수밤바다 드론 라이트 쇼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를 소호동동다리와 종포해양공원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성탄절 전야 700대의 드론이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 ‘나비 반도 여수’, ‘스마트관광 여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크리스마스이브’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여수밤바다를 수놓기도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섬과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 휴양도시인 여수가 ‘다시 찾고 싶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수시는 ‘2024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수시 제공

하겠다”면서 “전 세계 30개국 300여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상징물 구상 등 5가지 주제로 30일까지 온라인 제안서 제출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프로그램(콘텐츠) 아이디어를 4월 한 달간 공모한다.

공모전 주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상징물 구상 및 연관 콘텐츠 △인류, 섬, 바다를 아우르는 담은 콘텐츠 △여수 365개 섬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그 밖에 섬박람회를 부각할 수 있는 위한 핵심 콘텐츠 등 총 5가지다.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접수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전자우편(yshs0505@korea.kr)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추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1명·200만원), 우수(2명·100만원), 장려(3명·50만원)로 선정해 오는 5월 중 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공모전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2개월 동안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 지구와 부 행사장인 여수엑스포장, 금오도, 개도를 등 섬을 무대로 펼쳐진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미평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재개했다.

여수시 제공

미평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 재개

여수시가 동절기 임시 휴장했던 미평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재개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난해 5월 미평공원 내 130평의 규모로 조성됐다. 천연 잔디·울타리·놀이기구(징검다리, 시소)·견주 쉼터·반려견 음수대·배변 봉투함 등을 갖췄다.

전국 반려견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평일·주말 상시 운영하며 오전 시에는 휴장한다. 단 반려견은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하며 체고(발바닥~어깨)가 40cm 이하 중·소형견만 입장 가능하다. 맹견 및 맹견의 믹스견은 이용할 수 없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영유아 단독입장 불가 △출입명부 작성 △반려견 인식표 착용 △놀이터 내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운영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수시는 놀이터 내에 CCTV를 설치, 만일의 사고와 분쟁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산업 문화를 만드는 데 반려견 놀이터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17개 민·관·산·학·연 ‘탄소중립 실현’ 앞장

여수시가 17개 민관산학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여수’를 실현하고자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2’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여수시, 공발협, 전남도, 여수상공회의소, 한국화학연구원, 전남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전남여수산학융합원, GS칼텍스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총 8차례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1’을 운영 여수산단 탄소중립 방안, 수소도시 조성, 국가산단의 공공인프라 재구축 등 여수산단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층적인 연구와 대정부 제언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시즌2 운영하며 생물자원활용 산업기술생태계 조성, 여수산단탄소중립 다목적 고속도로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주요 주제로 추가 정책 제언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GS칼텍스는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해 여수산단 전체의 탄소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중1·학교밖청소년 등에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직업·영화·스포츠 관람 등 사용

여수시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진로체험 행복카드’는 충전식 포인트 카드로 연 10만원이 지원되며 진로·직업·문화 체험, 영화·스포츠 관람 등 지정된

체험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13세 학교 밖 청소년이다. 지난달 27일부터 2495명에게 행복카드를 교부했으며, 대상자는 12월15일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기간 경과 후에는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체험처는 129개로, 행복카

드 홈페이지(ys.purme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익한 체험처를 확보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행복카드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